

# “慈悲喜捨의 마음은 모든 선행의 근본입니다”

자 비 희 사

## 새해에는 참 나를 바로 봅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아침! 무차(無遮)의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라 깨달음과 지혜의 광명이 비추니 마음마다 황금빛 서기가 감돌고 집집마다 가슴열리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갑시다.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은 덜어주며,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하는 것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인드라 땅이요, 우주만우가 연기(緣起)로 이루어 졌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이는 자신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배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비희사(慈悲喜捨)의 마음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새해에는 총각을 녹여서 호미와 낫을 만들고 대립과 증오가 변하여 자비와 화합이 되어 전쟁과 공포와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다 함께 축수(祝手)합니다.

새해에는 참나를 바로 봅시다. 참나 속에 큰 지혜가 있고 참나 속에 행복이 있고, 참나 속에 큰 평화가 있습니다. 참나에서 대동(大同)과 소강(小康)도 비롯됩니다.

곤강(崑崙)의보옥도 탁마(琢磨)치 아니하면 가치 있는 보배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참나를 깨닫는 수행과 도덕을 절차(切差)치 아니하면 어찌 가없는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나고 날 적마다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 인가?'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진정한 참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다 함께 누립니다.

남의 활은 당기치 말고 남의 말은 타지 맙시다! 남의 그림도 분변하지 말고 남의 일도 굳이 알려지 맙시다.

他弓莫挽 他馬莫騎  
他非莫辨 他事莫知

새해의 새마당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서 각자의 분(分)을 지켜 책임을 다합시다.

새아침의 태양빛이 온 대지를 비추듯이 부처님의 사무량심이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두루 하니, 동과 서가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합심하여 통일을 염원할 때 태평기를 울리는 통일국가 일등국민이 될 것입니다.

無雲生嶺上하고 唯月落波心이라  
구름이 없으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오직 밝은 달은 물결 위에 떠있음이라.

## 함께 하는 큰 길을 열어 가자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새해의 대일광명(大日光明)이 온 세상을 밝히고 천지의 생명 기운이 만물을 새롭게 살려내니 사람마다 품은 원력이 알아알아 영글어서 못 증생 웃음소리 곳곳마다 곱게 피어나는 함께 하는 또 한해를 열어가도록 서원합니다.

진각종문의 새불교운동이 칠십년을 맞이하니 종단의 초석을 다지면서 융맹정진으로 생애를 바친 선대스승의 은혜를 다시금 심중에 깊이 새기고즉신성불과 현재정화의 정로를 밝게 받들어서 수행과 교화의 정도를 실답게 펼쳐갑시다.

법계는 그대로 진리가 가득한 세상이거늘 눈앞에 불의와 부조리가 넘쳐나듯 보이더라도 사회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립과 투쟁의 좁은 길을 걷기보다 화해와 상생의 더 큰 길을 넘어가서 진정한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심(正心)이 일어나면 사심(邪心)은 사라지고 공도(公道)를 세우면 사도(私道)는 멈추나니 내 허물을 먼저 깨달아서 사욕을 극복하면 정치안정과 경제번영이 지속적인 터전을 잡고 상부(相助)하고 예경하는 국가 사회가 건설됩니다.

앞선 사람이 네 뒷보다 네 뒷을 우선 살피고 뒤의 사람이 내 것과 더불어 남의 것도 챙겨서 분열과 갈등의 파열음이 화음으로 승화하는 자타상보(自他相補)의 공영(共榮)사회를 누리기 위해 새해의 서기(氣氣)가 가득하도록 마음모아 정진합시다.

## 나보다 이웃을 먼저, 베푸는 공덕쌓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병신(丙申)년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여의원만(如意圓滿)하게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영특함과 민첩함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원승이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 웃음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지나오며 고난과 격동의 현대사를 잘 이겨온 저력과 힘을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사회갈등,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가르고, 한 쪽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진중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처럼 한 생각만 돌리면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치가 있고, 눈 닿는 곳마다 극락이요, 서로 화합하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1236년 병신년에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통합을 위해 팔만대장경 불사(佛事)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원승이의 영특함을 발휘함과 동시에 진중함을 잃지 않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맑게 보는 청정심과 진중함으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미래를 향한 지혜를 모아 제시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할 때 모두가 상생과 평화의 길을 열어가 수 있습니다.

맑은 마음, 밝은 웃음으로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합시다.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나누고 베푸는 공덕을 쌓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탐욕과 대립의 삶을 여의자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병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방 유리광세계로부터 퍼져오는 새해 새아침의 찬란한 광명이 온 누리에 지혜와 자비의 모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승이의 해' 로써 일체중생이 진취적인 기상과 슬기, 그리고 영민함을 두루 갖추어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바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더욱 화합하고 공경하며 상생해 나갑시다. 탐욕과 대립의 삶을 여의고 화해하며 협력하는 종교 본연의 모습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고통을 걷어내는데 앞장 서 나갑시다.

지금 인류는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에 합입어 풍요로

운 삶을 구가하는 듯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신적 타락과 전쟁의 위험, 그리고 테러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고 극복하며 평화와 번영의 큰 길로 나아가려면 동체대비와 대자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이웃을 보살피는 자리아타의 정신에서 인류의 공익과 공존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병신년 새해의 맑고 힘찬 기운이 온 나라 온 세상을 고무 댔으니, 일체 갈등의 벽이 허물어져 소통이 원활하고, 만물의 본 면목이 드러나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병신년 새해를 여는 새날, 새아침입니다. 새날은 누구에게나 좋고 좋은 날입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잃었던 용기마저 다시 낼 수 있는 시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각종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각 70년이 되는 올해의 중책목표를 '혁신을 통한 진각100년불사 토대 마련의 해' 로 정했습니다.

종조님의 무진서원을 받들어 세계 밀업정토 구현을 위해 한걸 같이 달려온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을 통해 수행과 신행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현세정화를 이루기 위한, 진각 100년을 향한 불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각 100년을 향한 불사는 진각대도(眞覺大道)를 위한 우리들의 서원이자 실천행입니다. 진각 70년 종사의

결집으로 수행문화를 혁신하고 심인불교 정체성 재부상으로 자주와 긍정, 실천의 수행과 신행문화의 재정립을 꾀하며 진각문화의 대중화 기초를 마련하여 문화포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뒷받침이 되고 불자들의 수행을 즐겁게 하며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중불사도 될 것입니다.

이 불사의 인연공덕으로 새해에는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다른 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된다는 부처님의 이타자리정신이 온 인류에 널리 퍼져 전쟁은 사라지고, 갈등과 분열은 해소되며, 기아와 질병이 없기를 서원합니다.

## 과거의 회고와 성찰로 새 역사 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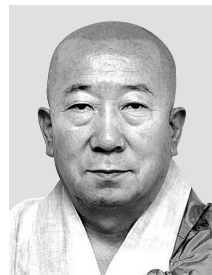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병신년 새해 아침 찬란한 햇살이 천지를 비추어 밝았습니다. 인연이 지극한 불자여러분 희망찬 믿음의 활력으로 병신년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는 진정한 의미는 과거에 대한 회고와 겸허한 자기 성찰위에 현재의 좌표를 확인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과 통찰로서 새 역사의 청사진을 펼쳐 가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관음종 창종 50년 집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애중지심으로 작은 열매를 거두어 가며 항상 현재에 머물며 충신했습니다. 용

기 있는 삶은 지혜로 와야 하고 희생을 감수하며 대중과 함께 해야 됩니다. 미래의 모습을 창조해가는 주인공이 우리들 자신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끝없는 질문 속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 기쁨을 더해가는 한 해 되길 서원합니다.



묘법연화경에 사인략의 가르침이 있는데 신(身)안락 구(口)인락 의(意)안락을 충실하게 하려면 서원(誓願)안락으로 믿음의 역량이 밝혀주어야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병신년에는 지혜로운 서원을 세웁시다.

## 좋은 씨앗을 가꾸어 회향하길

총지종 총무원장 범등 정사

교도 여러분 새해 인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미년이 지나고 희망찬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며 소원하는 바가 원만히 성취되시기를 서원합니다.

'일시무시일(一始無始)' 하나의 시작은 하나의 시작이 아니며, '일종무종일(一終無終)' 하나의 끝남은 하나의 끝남이 아니다' 는 옛 고전의 말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일상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탐진치'의 삼독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큰 수레

바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가 오늘로, 오늘은 내일로 이어지는 윤회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병신년 366일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습시다. 이 선물은 우리가 쓰지 않으니 좋은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과 좋은 열매를 거두어 회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인생을 지배하는 법칙인 인연 인과의 진리를 굳게 믿고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 마구니 장난에 휘둘리지 말라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금년 병신(丙申) 새해를 붉은 원승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병(丙)은 붉은색을 뜻하고,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을 원승이라고 정한데서 유래한 까닭입니다.

예부터 동국무원(東國無獮)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원승이가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스님의 영향으로 원승이가 손오공처럼 잡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겼으며, 큰 건축물 또는 사찰의 지붕 등에 원승이 상을 세우는 것도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풍전등화에 놓인 국유를 살려내기 위해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의 제작이 병신년에 시작했다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행자들은 원승이는 지혜와 영리함을 겸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나, 그 재주를 과신하거나 잔꾀를 경계하는 의미도 담고 있음을 마음의 경구(警句)로 삼아서, 어느 한순간도 헛된 마구니의 장난에 끌리지 말고 씩 없는 정신에 진력하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수호, 장수, 부귀 등을 의미하는 원승이의 이미지 및 지혜와 재치를 본받고자 하였던 조상들의 뜻을 승화시켜서, 지난시절의 혼란과 격동의 묵은 감정이나 슬픔은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의 새로운 도약과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운을 좌우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아름다운 약속 늘 기억하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戒定慧解知見生하시어  
三明六通道品發하시며  
慈悲十力無畏起하시  
衆生善業因緣出하시네.

계정혜 삼학을 닦아 열반의 세계를 증득하시어, 신통 자재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시며, 불보살님 갖추신 지혜와 복덕 자비롭게 베푸시니, 중생들의 착한 업이 인연 따라 생겨나네.

귀하게 만난 인간의 몸과 부처님 법에 감사하며 사바세계 울적에 모든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서원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을 늘 기억하라.

## 아집과 이기심 버리는 해로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불자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서원합니다.

2016년 새해는 원후 곧 원승이 해인 병신년입니다. 원승이는 지혜롭고 날쌔 동물로 옛 선조들은 원승이를 재주가 많고 총명하며, 성격이 밝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항상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어서 개인보다는 무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원승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를 위해 환원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 세계는 중중제법의 연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 위주, 금전만능의 세태지만 서로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중생계의 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아집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의 행복과 나의 가정, 나아가서는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